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채반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의 오리를 울과 춤이 거의 없이 둥글넓적하게 결어 만든 채그릇.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7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채반'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의 오리를 울과 춤이 거의 없이 둥글넓적하게 결어 만든 채그릇.

채반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채반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치반 사전 표기 요약	—	—	—	—	●→	—
채반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치반
  19세기
- 채반
  19세기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채반, 치반

채반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채반’의 옛말인 ‘치반’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치반’은 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가는 나무오리를 뜻하는 명사 ‘치’와 한자어 ‘盤’이 결합한 ‘치盤’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ㅣ’도 ‘ㅐ’로 변하면서 19세기부터 ‘채반’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채반

전체 용례 7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치반, 채반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치반, 채반

출처 1869 규합총서 16ㄴ

용례 01

문헌 용례

솟히 불을 ᄲᅡ게 씨오며 츅인 ᄎᆞᆯ벼ᄅᆞᆯ 작작 너코 쥬걱으로 져으면 틔여나거든 ᄎᆡ반으로 덥허 ᄃᆞ 틘 후 키로 ᄭᅮᆼ불너.

현대어 풀이

솥에 불을 싸게 때우며 축인 찰벼를 작작 넣고 주걱으로 저으면 (벼가) 튀어나거든 채반으로 덮어 다 튄 후에 키로 까불러.

출처 1880 한불자전 589

용례 02

문헌 용례

채반 簣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채반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채반

출처 1900-05-29-화 제국신문 제3권 제118호:1면

용례 03

문헌 용례

양잠ᄒᆞᄂᆞᆫ 틀이 잇스되 쟝은 큰 채반 기리만 ᄒᆞ고 광은 채반 두 넙위만 ᄒᆞ게 ᄒᆞ고 고ᄂᆞᆫ 팔구 쳑 가량 되게 의거리장 모양으로 짜셔.

현대어 풀이

양잠하는 틀이 있는데 길이는 큰 채반 길이만 하고 넓이는 채반 두 넓이만 하게 하고 높이는 팔구 척 가량 되게 의거리장 모양으로 짜서.

출처 1900-05-29-화 제국신문 제3권 제118호:1면

용례 04

문헌 용례

누예 올니는 법은 그 채반에 곡셕 집흘 늘어노흐면 고치를 의슈히 짓는다 ᄒᆞ는ᄃᆡ 그 ᄒᆞᆫ 틀에 고치 삼십 두는 되겟다 ᄒᆞ더라.

현대어 풀이

누에 올리는 법은 그 채반에 곡식 짚을 늘어놓으면 고치가 의수히 짓는다 하는데 그 한 틀에 고치 삼십 두는 되겠다 하더라.

출처 1921 동아일보 6월 21일 3면

용례 05

문헌 용례

내관의 손에 밧드러 온 고치 채반에 아담하고 깨긋히 매처 잇는 고치를.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5 조선일보 3월 5일 3면

용례 06

문헌 용례

다 익은 후에는 반드시 채반 가튼 데 올려 노아 기름을 빼인 후에 접시에 담어 노흐십시요.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1 동아일보 2월 5일 5면

용례 07

문헌 용례

저육을 살믈 때 반쯤 삶거든 건저 내여 냉수에 맑아케 씨슨 후에 쏘다시 삶아 이켜 내여 채반에 노코 냉수를 씨언저 시켜서 쓸어 먹어야 빗도 히고 내음새도 업고 맛도 조흔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채반 관련 낱말

채그릇

채반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채반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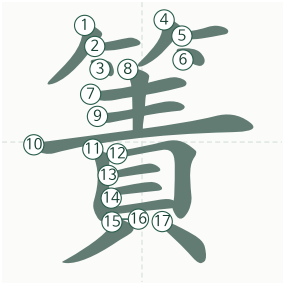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簀

뜻·음 살평상 책

총 17획 · 부수 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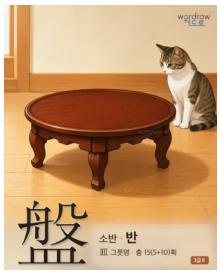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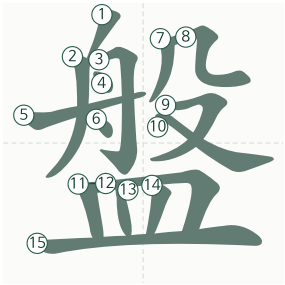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簀/

盤

뜻·음 소반 반

총 15획 · 부수 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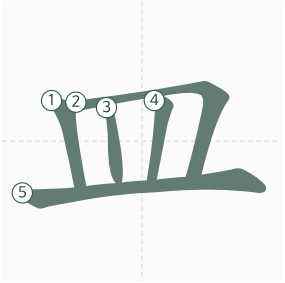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盤/

皿

뜻·음 그릇 명

총 5획 · 부수 皿





hanja.wordrow.kr/한자/皿/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